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38-11:3

원한다면 히브리서 11 장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립니다. 성도들의 명예 명부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인드글라스에 불멸의 간증을 남긴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 많아서 웨스트민스터 성경 수도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제 임무는 시리즈를 시작하는 것이므로 도량을 파고 기초를 놓는 부분이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건축물의 진정한 영광과 경이로움, 아름다움은 이 놀라운 장 전체에 걸쳐 전해지는 개별적인 이야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위해 기초 작업을 하고 현장을 조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히브리서 11 장을 보시되, 10 장 38 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38 절, 39 절, 그리고 1, 2, 3 절까지 다섯 구절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38,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멸망으로 물러가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확신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을 가집니다. 옛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0 장 마지막에는 매우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성경 하박국서 2 장 4 절에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오직 믿음과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모든 핵심입니다.

이제 이 서신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 구절의 흐름을 조금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 열 장에서 저자는 한 가지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열 장에 걸쳐 한 가지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새 언약, 예수님의 피에 담긴 새 언약이 동물의 피로 표시된 옛 언약보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새 언약은 동물의 피로 표시된 옛 언약보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우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옛 언약과 관련된 모든 것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천사보다 낫습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낫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낫습니다. 그는 아론보다 낫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보다 낫습니다. 그분은 이전의 어떤 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며, 이전의 어떤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이며, 더 나은 언약을 인봉하시는 분입니다. 처음 열 장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상징에서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으로 나아가십시오."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 주기적으로, 10 장에 도달 할 때까지 이미 4 번 이상 경고가 있으며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2 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머지 부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었으면, 떠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6 장,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여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10 장 38 절에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갔다가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글을 쓴 사도 또는 사도들과 관련된 사도들 중 일부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고, 관심이 있고, 가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돌아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경고는 이 서신 전체에 걸쳐 있으며, 가볍게 말하면 무서운 경고입니다.

10 장 29 절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을 모욕한 자는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하겠느냐? 우리는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 서신은 한 무리의 신자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자들 중에는 외적인 방식으로 교제에 참여하려 왔지만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나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오지 않으면 심각하고 영원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장 마지막을 보면 다른 모든 경고에 추가되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38 절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미 참된 것으로 알고있는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와 참된 교회, 참된 신자, 또는 이 서신을 통해 그런 식으로 식별 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가까이 왔지만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아가지 못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들은 타락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시스템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1 세기 유대인들은 행위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 세기 유대교는 구약의 유대교도 아니었으며, 구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배교한 형태의 구약 종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조금만 살펴보면 신약 시대의 유대교가 진정한 유대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구약의 유대교도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지도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모두 부패했고, 모두 어둠의 왕국을 대표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모두 너희 아버지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여 구원을 얻는 모든 시스템은 사탄의 진리 위조품입니다.

따라서 1 세기 유대교는 구약의 참된 신앙 종교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을 뒤집고 행위로 대체한 이단적인 사탄의 행위, 의로움 체계였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교는 다른 거짓 종교와 마찬가지로 윤리와 의식에 기반을 둔 종교적 숭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성전이 헐어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몇 년 후 로마인들이 와서 바로 그렇게 했고 배교한 유대교를 무너뜨렸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행위 구원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지론자가 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 또는 다른 비기독교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은혜에 의한 구원을 행위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계시를 왜곡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최악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근원에 근거한 것입니다. 거짓된 형태의 유대교와 거짓된 형태의 기독교는 사탄에 의해 왜곡된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3장, 거듭 반복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여준 후, 10장 마지막에 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직접 인용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합니다. 돌아서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2장에서 다시 경고하고, 4장에서 경고하고, 6장에서 경고하고, 10장에서 네 번째로 경고하고, 29절에서 다시 엄중히 경고하고, 마지막에 또 한 번 경고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행위나 노력, 의식이나 성례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 즉 믿음의 단순한 기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두 구절의 그 정의 뒤에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예화가 연이어, 연이어, 연이어 나오는데, 모두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오십시오.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처럼 믿음의 길로 나아가세요."라는 구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모델입니다. 따라서 첫 두 구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선언을 한 다음 여기에 나열된 모든 인물에 대한 강력하고 극적인 믿음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모두 구약의 인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셨고, 구약성경의 기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첫 세 구절에서 세 가지를 보여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에 몇 가지 구멍을 파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간증, 믿음의 예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본질, 1 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입니다."를 살펴봅시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신학적 정의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선언입니다. 정의라기보다는 선언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사용되는 그리스어 피스티스로서 믿음, 신뢰, 신념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제 이 두 단어는 거의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분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NAS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실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드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단어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손잡이를 제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믿음은 희망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을 가져와서 실체를 부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실체가 있고, 몸체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 소유하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재의 실체, 현재의 현실을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 보여 주듯이 구약 시대에는 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약속만 있고 약속만 있는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들 모두는 약속 밖에 없었습니다.

11 장 39 절의 끝을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승인을 얻은" - "그들의 믿음으로" - "약속 된 것을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께서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마련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는 완전 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실현되지 않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미래와 관련된 약속입니다. 남자들 여자들 그들은 희망을 걸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약속뿐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가시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결같이 매우 암울해 보였지만 그 약속은 그들에게 실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약속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 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11 장 26 절을 보세요. 모세에 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파라오의 딸에게 양자로 입양되어 손에 쥔 애굽의 보물을 기꺼이 포기했고, 메시아적 소망에 불과한 그리스도를 위해 손에 쥔 애굽의 부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너무나 강력했고, 그 약속은 실체가 있고 확실하여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약속으로만 다가올 미래를 위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기꺼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11 장에 등장하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약속에 목숨을 걸 만큼 무게와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참되고 진정한 구원의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믿어"라는 식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약속된 무언가에 대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류의 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었고 신약의 모든 기록이 있지만, 미래의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은 아직 우리에게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과 그분이 가져올 왕국에 대한 약속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실 메시아의 약속과 그분이 가져올 왕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기록에서 본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 그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헛된 그리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은 평생을 이렇게 높은 수준의 헌신과 헌신, 예배와 표현, 증거와 간증으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실현되지도 않은 약속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살잖아"라고 말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기 전에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토마스조차도 "나는 볼 수 없다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세상의 생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콘트라 문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른다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믿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인과 교육자들의 손에 안전한 미래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삶이 우리에게 특별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높은 수준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를 바라보며 "왜 웃고 있니? 왜 그렇게 행복해? 그 모든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죠?"라고 물으면 "저는 믿음으로 살아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일종의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그들에게는 믿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믿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붙잡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잃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니엘서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청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왕에게 경배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실재하고, 왕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주저 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타는 풀무 속으로 바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재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세상과 세상의 작동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며, 우리를 주변 세상과 이질적인 존재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기독교적 희망 또는 기독교적 믿음은 세상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감각에 대한 믿음, 감각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을 원한다. 내가 맛보고 만지고 잡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감각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 장 6 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도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6 절에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이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만지고 느끼고 듣고 보는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며 감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적 희망은 현재에 대한 믿음, 현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넓게 설명하기 위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독교인은 미래의 약속을 위해 현재의 쾌락을 희생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게 자주 하시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니, 왜 항상 눈앞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거니? 왜 항상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움켜쥐는 대신 미래에 대한 만족을 미루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좋은 철학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철학 수업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서양 철학을 오래 전에 들었는데, 에피쿠로스가 "인간의 최고 목적은 쾌락이다"라고 말한 게 기억나요. 하지만 에피쿠로스가 쾌락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인생의 최고 목적이 순간의 즉각적인 쾌락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그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쾌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즐겁지만 곧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결국에는 기쁨을 가져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당연하게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을 주는 성취는 순간의 고통을 이겨내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순간의 변덕스러운 쾌락을 모두 거부하고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쾌락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를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인식은 "나는 인생의 순간적인 쾌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장기적인 쾌락, 인생의 장기적인 성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다가올 삶의 즐거움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참된 쾌락으로부터 저를 단절시키는 인생의 쾌락을 기꺼이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역사나 인간의 행동 또는 인간의 경험에서 검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로 입증된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나오는 물을 마실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수도관에서 노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당신은 식당에 갈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식당에 앉으면 음식을 한 접시 가득 건네주면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식당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앞쪽 창문에서 A 나 B 를 찾았다는 건 알아요. 아무 창문이나 붙일 수 있죠.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차에 탈 때마다 믿음으로 살고, 6~8 개의 실린더가 폭발하기 시작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출로에 올라갈 때마다 도로를 만든 누군가가 재앙이 아닌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속 55 마일로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같은 경사로에서 두 대의 세단이 오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정 행동에 의해 훈련되었기 때문에 침을 흘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갈 때 믿음으로 살죠? 의사가 당신을 기절시킨 다음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은 그들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무엇을 꺼냈는지, 무엇을 넣었는지 전혀 알 수 없죠.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외과의에게 가려고 하나요? 왜 기꺼이 자동차 시동을 걸까요? 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나요? 왜 식당에 가려고 하나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기꺼이 마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안전했음을 나타내는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인도에 가면 물을 마시고 싶지 않고, 음식을 먹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만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종류의 자연스러운 믿음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험으로 인해 일반적인 개념으로 도달하는 결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지 못한 약속을 근거로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기쁨,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 부활과 같은 큰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은 실체 또는 확신, 후포스타시스입니다. 그것은 강한 단어이고 무게가 있습니다. "굳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1 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후포스타시스라고 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설 수 있는 확고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믿음은 내 마음을 굳건히 지탱해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진실하심에 의지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을 것이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죠? 성경의 신성한 저자는 너무나 분명하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영광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저는 성경의 어떤 내용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래 공부할수록 더 믿음이 생깁니다.

11 장 13 절을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 11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사람들 - "이 모든 사람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죽었으니" - 믿음으로 "멀리서 믿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땅에서 나그네와 유배자라고 고백한" -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약속,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경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멀리서나마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이자 망명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6 절, "우리는 더 나은 나라, 즉 하늘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현실로 끌어와 우리 삶에 무게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로 1 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확신, 엘레초스입니다. "절대적인 신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게와 실체가 있다는 생각,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확고한 신념입니다. 순교자들이 화형에 처해져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확고한 신념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살아가며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 될 정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념에 따라 살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넘어갔습니다. 11 장 27 절로 돌아가서 앞서 읽은 모세에 관한 구절 바로 다음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재물보다 그리스도의 모욕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27 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를 보는 것 같이 인내하였으니"라는 구절에서 그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주목해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고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기 위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즉, 그의 믿음에는 무게와 실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야 할 방향으로 그를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의 의미입니다.

또는 노아의 예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장에서는 노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노아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가 올 거야"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위에 비가 온다고요?"라고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내릴 거예요." "정말요?" "그건 나를 믿어야 해. 백 년, 이십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지만 비가 내릴 것이다."

비를 본 적이 없던 노아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익사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과 아내,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막 한가운데에 배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비가 올 거야 비가 온 적이 없잖아. 사막 한가운데에 배를 띄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입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요? 배를 만들었죠. 120 년 동안 배를 만들었죠.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80 년 동안이나 그 일을 해왔잖아, 노아. 농담하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신념을 일으키고 신념은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는 사막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더 많은 예화를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미래적인 것들이 실재하며, 그것들은 무게가 있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2 절에 나오는 믿음의 간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옛사람들이 인정을 얻었느니라." 옛사람이란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장 전체에 열거된 구약의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옛사람들이 그것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이 헬라어 동사는 "칭찬을 받다", "인정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6절 6절로 돌아가서 "믿음 없이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 무엇을 하려면요?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실질적인 믿음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확신이 되었었고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아벨은 제사에 관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승인하셨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구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이를 얻었고, 그들의 허리에서 한 민족이 나왔으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람, 요게벳,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고,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며, 이 장의 명예의 전당에 있는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을 보세요. 스테반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장면에서 그의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일 때 우리 삶에 실체를 가져오고 우리의 행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확신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제 마지막 몇 분 동안 3절에서 우리를 안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믿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매우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분명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무도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라틴어로 '엑 니힐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 때 항상 이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진화론적 모델에 맞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창조는 과학적 사건이 아니며, 창조는 신이 매일 저녁과 아침, 즉 24 시간 동안 6일 동안 우주 전체를 창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소경의 머리에 새 눈을 뜨게 하거나, 사지 마비 환자에게 새 팔다리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창조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기적에는 과학적 설명이 없습니다.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거대한 기적은 창조의 기적입니다. 6일 만에 우주 전체가 창조된 것에 어떤 종류의 과학적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무에서 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저가,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으세요? 창조 이야기를 믿으세요. 그것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 우리는 이해한다 - "세계" - 아이온은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창조된 시간 우주를 의미합니다. 아이온은 실제로 시간,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물질,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카타르티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에 의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발화에 의해 적합하고 적합합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모세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창세기 1 장과 2 장에 기록한 방식입니다.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설명하려는 과학자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적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과학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친 짓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아이디어는 빅뱅 이론이며, 빅뱅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138억 년 전에 원시 핵이 있었다." "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지? 농담 좀 해주세요."

"138억 년 전에 원시 핵이 있었다" - 13.8이 가장 최근의 날짜 - "138억 년 전에 원시 핵이 있었다. 그리고 폭발했죠. 1 초, 즉 찰나의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폭발했나요? 그리고 그 열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폭발이 뭔가요?" "그냥 폭발이 있었어요, 믿으세요."

"핵, 이 핵은 너무 조밀해서 흩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10의 44 제곱으로 추가로 확장되었고, 그것이 원래 태양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덩어리는 "가래처럼 생긴 이럼이라고 부르는데, 물 밀도의 100 조 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종류의 폭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물보다 100 조 배나 더 밀도가 높은 '알케미'라는 물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은하에는 평균적으로 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은하수에 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 은하이고 적어도 1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10의 50의 제곱에 0과 0, 0과 0을 계속 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광기입니다. 그것은 광기의 한 형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과 같다고요? 제도화해야 합니다. 특히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모든 것이 분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가르친다면 정장을 입혀야 합니다.

"어떻게 진화를 반증하죠?"라고 묻는다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창조의 목격자가 단 한 명뿐이었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분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목격담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마스터스 유니버시티와 창세기 창조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의 100 년 동안 이 기관을 건전한 교리로 굳건히 세워온 교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6 일 창조는 모든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 2, 3 장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구절입니다. 이 가장 큰 공격에 맞설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진정한 기독교 기관인지 알고 싶다면 한 가지 질문만 하세요: "창세기 1 장, 2 장, 3 장에 대해 무엇을 믿으세요?" 만약 그들이 진화 과정, 즉 우리가 이야기해 온 거시적 진화나 인간의 미시적 진화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3 장까지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진화가 일어났는지 물어보세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령에 의해 준비되었으므로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것은 수십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형성된 것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6 일 만에 창조하신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의 명료함과 능력, 진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옛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무게와 실체를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하는 확신을 날도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열한 번째 장의 여정을 통해 이러한 이해가 크게 확장되어 우리 모두에게 과거에 알았던 것 이상의 기쁨을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멘.